

공동체 소식



대림 주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대림 주일 동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면서, 하느님이 주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가슴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12월 기도지향

- Jason Savage, 박동희(안나) 가정
김민호, 이지혜(로사) 가정

대림시기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지향

매 달 공동체 내의 두 가정을 선정하여 기도를 봉헌한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첫 침례 미사와 십자가의 길, 목주기도뿐만 아니라, 그 달의 모든 미사, 영성체, 목주기도, 십자가의 길, 봉사 등을 지향 가정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성탄 및 새해 전례

Table with 4 columns: Date, Event Name, Time, Location/Details.

12/31(화) 송년미사는 없습니다.

기타

- 새해 공동체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 당 1부 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13년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1년 구독료는 60불입니다.
성탄 대축일 맞이 제대 꽃 봉헌 받습니다. 전례분과에 문의 바랍니다.
오늘 중심미사 후, 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중심미사 후, 어린이 복사단 성탄 밤미사 예행연습이 있습니다.
12/23(일) 구역회에서 떡국 떡 판매합니다.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이 번 주 일, 시 종 복 사, 향 복 사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이 번 주 일, 해 설 자, 제 1 독 서, 제 2 독 서

애찬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이 번 주 일, 지 은 경, 12/25, 가 정 당 한 접 시, 다음 주 일

헌금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이 번 주 일, 신 해 경, 박 희 영, 다음 주 일, 김 태 중, 정 수 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우금에
정성을 다해 두셔서 감사합니다!!!

- <12월 16일>
- 미사참례 : 96명
- 주일헌금 : \$480
- 교 무 금 : \$1050



대림 4주일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전례에 적극 참여한다"

2012년 12월 23일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재무 차호섭 요셉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께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칭송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성화해설

신나무골
대구대교구,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소재.
영남지방 선교의 요람지인 신나무골은 박해시대 교우촌으로 1815년 을해박해 때부터 신자들이 살았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신정보실장

제 1 독서 : 미카 5,1-4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하느님 저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들어주소서. 케루빔 위에 좌정하시는 임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권능을 떨치시며 저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 주 만군의 하느님 돌아오소서. 하늘로서 굽어보사 살펴 주소서.
비오니 포도밭을 찾아주소서. 지켜주소서 당신의 오른손이 심어주신 즐거움을 당신 위해 실히 해 주신 그 가지를.
○ 당신의 오른손 쪽 사나이 위에는 당신 위해 굳세게 하신 그 사람 위에는
당신의 손이 있게 하소서.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리니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기리오리다.

제 2 독서 : 히브 10,5-10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 음 : 루카 1,39-45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세 마

“기쁨과 축복의 잉태”



오늘 복음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어떤 축복과 기쁨인지를 말합니다. 오늘현대인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 일차적 관심을 가지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폭의 그림과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전하였습니다. 기록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과 그녀 태중의 아기는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였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대단히 소박합니다. 위대한 것도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한 여인 안에 장차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생명이 수태된 것입니다. 그 잉태는 마리아를 위대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축복과 기쁨에 넘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혹은 존경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서둘러 가서 엘리사벳과 그 태중의 아기를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수태되면서부터 사람들 안에 축복과 기쁨을 발생시키며, 섬기는 분이셨다는 초기교회의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지킬 계명을 주고, 정성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축복과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명령하며,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이를 고쳐 주고, 죄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여,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섬김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생명을 주고 살리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축복하여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물과 권력입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력이 소중하게 보이는 곳에,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무자비하며, 남에게 군림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빌고 바쳐서 재물과 권력을 얻어 누리려고도 합니다. 하느님에게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신다고, 혹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면, 그분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런 말 뒤에는 하느님을 후광으로 재물과 존경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느님은 은혜롭고 사람을 살리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여러분은 나에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마태 11,28).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 버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11,3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영접하고 이웃과 그것을 나누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태되면서부터 축복이고 기쁨이었다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이론의 대상도 아니고, 높은 옥좌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삶 안에 축복과 기쁨으로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잔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 신앙인입니다.



● 부산교구 서공석 신부

마 중 물

신앙과 미신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진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서울 장안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불하는 액수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 앞에 바치는 헌금 액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 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거액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 ‘미신을 쫓고 있다’ 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나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소유로 신을 달라고 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반면에 절대자이신 신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바로 <나의변화> 유무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당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그분을 나의 돈이나 재능으로 달라고 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어 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7. 신앙의 해에 신자들은 특히 무엇을 배우도록 힘써야 할까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해에 모든 신자는 신앙의 원천인 성경은 물론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주요 문헌들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를 깊이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사제직 지원자들, 그 중에서도 예비 신학생이나 신학을 배운지 얼마 안 되는 이들,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수련자들, 식별 기간을 통하여 교회 단체나 운동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특히 그러할 것입니다(교황청 신앙교리성).

8. 신앙의 해에 성모 신심을 신자들에게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해에, 성모 신심을 신자들에게 특별히 권장하는 것은 성모님이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범이신 성모님께서 “뽀뽀한 이들의 온 공동체에 덕행의 모범으로 빛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구원의 신비에서 차지하는 성모님의 특별한 역할을 깨닫고 신앙과 덕행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계획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성모 순례지를 순례하고, 그곳에서 행사와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교황청 신앙교리성).

청주교구는 감곡 성모순례지가 있고, 성모대성전과 영적 유대를 맺고 있는 성당들이 있다. 이러한 성당들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방문하고 미사에 참례하면 전대사를 받습니다.